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불교

원주

원주불교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암연합회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종교 간의 교류도 활발하며, 지역 참여도 적극적이다.

우선 원주불교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도심포교당 성불원은 교육·복지 활동으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성불유치원과 명륜·금강·연꽃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인 강원도 자연학습원 등 5개의 어린이·청소년 교육시설과 함께 원주시 입북지원·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학생·청년 법회도 활발하다.

영서지역의 대표적 사찰인 구룡사는 원주불교대학과 템플스테이에 주력하면서 교육과 문화로 특성화해 지역 포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체,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는 인기가 높다. 또 종교간 교류를 통해 열린 사찰의 이미지를 심었으며, 환경보호 운동도 활발하다.

신흥 포교도당 성문사는 어린이·학생·청년·가족 법회와 합창단으로 지역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사음악회와 호국영령위령제 등의 문화행사로 지역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또 군법당인 범용사도 군부대가 많은 원주지역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인 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행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 원주불교신도연합회를 축으로 불교여성회, 장각회 등 재가불자 단체와 경찰서 법우회, 시청법우회, 교도소 불심회, 교원불자회, 개인택시법우회, 연초제조장 불자회 등 직장단체들, 그리고 이들의 연합체인 원주신행단체연합회가 원주불교 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정기적으로 불이웃과 독거노인 돕기에 나서는 등의 활동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평창

평창불교의 전부는 월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여 말사를 거느린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2년 전 정법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평창불교뿐만 아니라 강원불교의 모습을 바꾸어놓았다.

지난 2년 간 월정사가 벌인 활동은 거의 전방위적이다. 수행·신행·교육·포교·문화·복지·국제교류 등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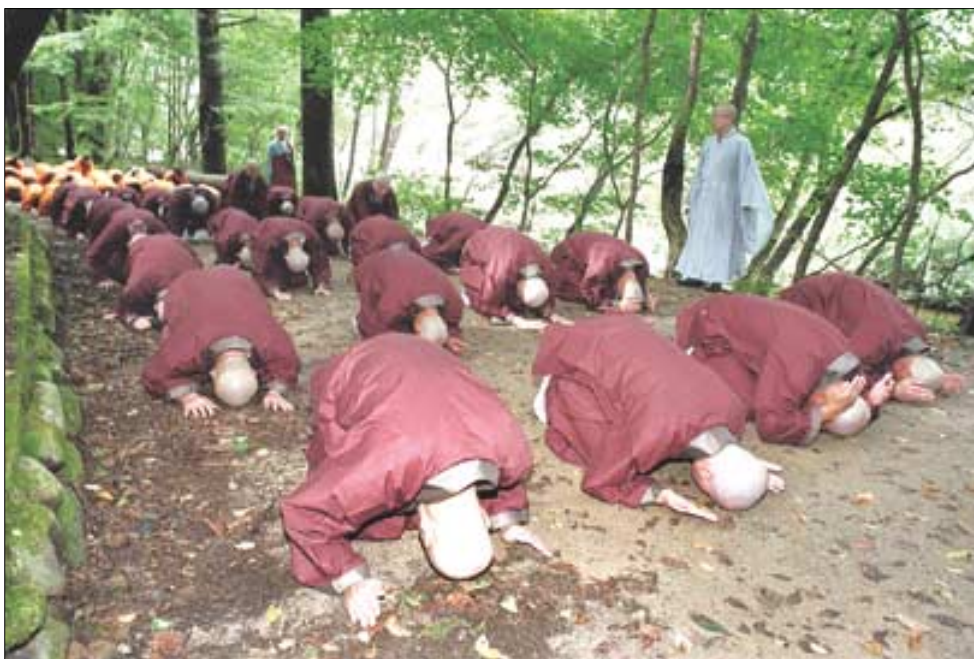
수행분야에서는 단기출가를 빼놓을 수 없다. 월정사하면 단기출가를 연상할 정도로 단기출가는 월정사의 상징이 됐다. 수행분위기 확산과 출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1년에 네 차례 진행되는 단기출가는 매년 10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한암·탄허 스님의 승풍을 이어받기 위해 수행학림과 휘호대회도 열리고 있다.

불교문화축전, 주지배 측구·죽구대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포교전략도 성공을 거뒀다. 또 지역 청소년들의 신행조직인 '문수청소년회'를 조직해 젊은층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사업도 활발하다.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 대회와 함께 산사에서 처음으로 영화제를 열고 특성 있는 음악제를 개최하는 한편, 박물관 문화대학을 열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불교대학을 열어 신도교육에도 적극 나서면서 올바른 신행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열어 불교문화를 확산시켰다.

국제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오대산, 미안마 마하시 수도원과 결연한데 이어 조만간 대만

강원 원주·평창·영월·횡성



월정사 단기출가에 참가한 사람들이 식발식 후 월정사 일주문에서 사찰까지 3보1배를 하는 모습. 1년에 네 차례 진행되는 월정사 단기출가는 매해 10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원주 지역 특성 맞게 다양한 포교전략 구사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로 '수행불교' 새바람

영월 법흥사·보덕사, 인근 지역별 신도회 구성

횡성 보광사·광제사, 유치원서 불교 씨앗 틔워

불광산사와도 자매결연해 복지와 포교분야에서 교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행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월 기공식을 갖고 선원건립에 들어갔다. 장기적으로는 재가 수행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대흐름에 맞춰 웰빙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영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영월불교는 이름뿐이었다. 그런 영월불교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불교계 목소리가 지역현안에 반영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법흥사가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인 법흥사는 적멸보궁으로서뿐만 아니라 포교도량으로서 영월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각종 불사를 통해 사격을 갖춘 법흥사는 영월, 제천, 원주 지역에 신도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포교에 나서면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또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초교리 강좌를 여는 한편,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전을 지어 24시간 열린 법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매년 영월 단종문화제 기간중 추모 영산대재를 열

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 온 보덕사도 최근 신도회, 청년회, 거사위원회를 토대로 신행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또 사암연합회는 불이웃돕기 등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횡성

횡성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자 군부대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인구는 4만이지만 계속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교 역시 이런 지역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세가 강해 횡성불교가 입지를 넓히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찰 수는 10여개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사암연합회도 없다. 다만 경승활동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고, 횡성을 대표하는 보광사와 광제사가 불교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불교의 명맥을 잇고 있다.

특히 88년 세워진 보광사 룸비니유치원은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과 전인교육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며서 어려운 여건의 횡성불교에 희망을 싹 틔우고 있다. 보광사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야외학습과 자연학습으로 불심을 심어준다.

현명우 기자 mw@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바람직한 교구본사 모델 제시

정법 스님 (평창 월정사 주지·강원불교연합회장)

정법 스님은 강한 추진력, 미래지향적인 사고, 열린 마인드로 월정사 주지 부임 2년 만에 강원불교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계종 교구본사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바람직한 교구본사의 모델'을 제시했다. 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군림하는 본사가 아닌 함께 하는 본사 이미지를 만들었다.

또한 본사 중무회의와 교구총회를 의견수렴 기관이자 결정기구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었다.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지난 2년간 월정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를 뿌리내리고 심화시키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타종교인과 활발히 교류

원행 스님 (원주 구룡사 주지·원주사암연합회장)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진 원주불교의 리더. 원주사암연합회 회장,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 월정사 부주지, 강원경찰청 경승단장, 원주교도소 교정위원 외에도 NGO 단체 활동 등으로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다.

대중과 함께 하는 열린 사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 원행 스님의 구룡사 운영 철학. 특히 교육과 문화, 국제적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해외교류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의 개신교 가톨릭 종교인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면서 종교화합에 나서고 있다.



그늘진 곳 찾아 불법 전해

현각 스님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은 원주불교의 대명사다. 성불원을 창건하고 20년 동안 포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로 원주불교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교육과 복지에 전력하면서 불교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논리정연하고 시대감각과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뛰어난 지역과 불교계에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다.

'서민불교'가 돼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으로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고, 원주시청법우회 등 여러 신행단체 지도법사를 맡아 지역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있다. 원주시민회의 공동대표, 환경청 환경위원, 철도청 녹색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도 벌이고 있다.



12년째 룸비니유치원 운영

계호 스님 (횡성 보광사 주지·조계종 중앙총회의원)

계호 스님은 매달 원주교도소 법회도 빠뜨리지 않는 등 재가사 포교에도 열심이다. 반가상좌불을 조성하고, 정기법회 때 불교의식을 갖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취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그야말로 '사람'을 키워온 계호 스님. 이렇게 룸비니유치원을 지켜온 지 벌써 12년째. 언론사에서 12년 간 강사로 있으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계호 스님은 천상 교육자다.



군법회와 경승 활동 그리고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현재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영월 불교 발전·화합의 중심

도환 스님 (영월 법흥사 주지·영월사암연합회장)

영월지역 스님들은 '도환 스님 없는 영월불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8년 전 법흥사 주지로 부임, 이름뿐이었던 법흥사를 수행·포교도량으로 만든, 사암연합회를 만들어 지역불교 발전과 화합을 일궈냈다.

특히 '명함'도 못 내밀었던 영월불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역 스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지역민들과도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친근한 불교 이미지를 심었다.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신행공간을 마련해 질적인 포교에 나설 재비를 서두르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농사법인' 구성

정선 스님 (원주 극락암 주지)

극락암이 위치한 원주 문막 공촌리에는 교회가 없다. 정선 스님이 20년 간 마을 주민과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마을주민과 함께 농사법인을 구성해 농산물을 공동저장하고 판매해 오면서 가족처럼 지내왔고, 그러다보니 마을 주민 거의 모두가 극락암 신도가 됐다.

요사채만 남아있던 극락암 자리에 법당을 짓고 사찰을 일으킨 정선 스님은 가장행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쌀과 생필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강의교재 직접 만들어 교육





경혜 스님 (원주 성문사 주지)

성문사를 원주의 중심도량으로 발돋움시키면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원주사암연합회 상임부회장을 맡아 지역 불교 발전에도 전력 중이다. 가족교회법회에서는 강의교재를 직접 만들어 교육에 나설 정도로 신도교육에 대한 열정이 깊다.

경혜 스님은 매달 원주교도소 법회도 빠뜨리지 않는 등 재가사 포교에도 열심이다. 반가상좌불을 조성하고, 정기법회 때 불교의식을 갖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2쪽금병풍 크기 (1쪽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인 지장본원경)

복장 의식

상 불 호 소 영
량 신 장 가
의 식 사 용 용
의 천 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기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경진 재래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화재단 신사님 역력 / 조가

건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한 문재현 선사님 여귀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해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한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심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바로보인 선문염속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제로 세상을 복습하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쫓는 희다



2005년 12월 4일 일요일 오전 11사에서 12시 사이에 대한 문재현 선사님의 반야심경 법회가 있습니다. 선(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법문에서 이 시대의 아부 선사로 불리는 대한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